

그러나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 결코 출생과 잉태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성행위와 연관된 것이 의식적인 불결로 저주나 타난다. 그러나 어디에도 성이, 죄로 여겨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잉태하는 성행위는 죄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주께서는 레아(창 29:31)와 라헬(창 30:22, 23)의 태를 여시고 룯을 잉태하게 하신다(룯 4:13). 또한 잉태의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신다(시 139:13, 욥 10:8 이하). 이 본문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창 6:5:8:21, 참조: 왕상 8:46, 시 130:3, 욥 14:4).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죄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갔고, 죄의 영향을 받았고, 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미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가계저주론자들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성경의 본뜻을 왜곡한 것이며 결국 나아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가계저주론자들은 성경의

뜻을 왜곡하여 해석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4)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

(잠 26:2)

소위 가계저주론자 들은 모든 저주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세대에 저주가 임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프린스 1999:103). 그리고 이들은 잠언 26장 2절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저주가 나타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상동). 그러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까닭 없는 저주'(qillat chinnam)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표준새번역 성경)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즉 이 구절은 모든 저주에 '까닭이 있다'는 점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저주는 그 어디에도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친히 말씀하셨다(겔 18:3~4).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 준 이 신탁의 말씀은 구약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에스겔이 전해 준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질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해 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